

기 획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 리포트

재정패널 조사자료의 특성

- 가계동향조사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정패널DB사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조사(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해도 함양을 목적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해 재정패널자료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패널조사는 올해로 9차년도 조사를 맞이하는 종단조사이다. 전국 5,000여 가구와 소득활동을 하는 8,000여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사는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의 소득과 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와 복지현황 등을 포괄하는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른 가구조사와 달리 조세 및 재정정책 분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소득과 납세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개인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납세신고자료를 전산화하여 조세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 자료이다.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납세자의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계획이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패널조사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이해도 함양을 목적으로 본 자료와 유사한 조사문항을 가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자료 이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활용도 높은 재정패널조사자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 조사 설계

재정패널조사와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적 기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조사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표본조사이다. 표본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설계하는데, 조사 설계의 차이는 결국 조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 설계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 설계 비교

항목	가계동향조사	재정패널조사
조사기관	통계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종류	횡단조사	종단조사
조사목적	• 가구에 대한 수입, 지출 및 가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수준 변화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소득, 소비, 부채, 자산, 복지, 조세 정보를 파악하여 조세 및 재정, 복지 정책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조사모집단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본	약 9,000가구	5,634가구
조사연혁	1963년~현재	2008년~현재
조사주기	매월	1년
조사방법	• 가계부 자계식(수입, 지출) • 면접타계식(가구실태)	• 면접타계식 조사 • 행정자료 수집
활용범위	•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 조세 및 복지 정책 분석

출처: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2011), 「재정패널조사 사용자 안내서」(2015)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횡단조사 방식의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사 중 하나이다. 가계동향조사가 시작된 목적은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품목 파악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매월을 조사주기로 응답자가 직접 가계부 형식의 조사표에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는 조사방식을 택하여 수집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응답자의 회상에 의한 응답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짧은 조사주기를 갖는 조사에 적합한 조사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조사방식은 응답자의 피로도가 높아 조사를 거절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표본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표본 탈락에 따른 영향력이 감소되도록 표본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대상의 규모를 약 9,000가구로 설정하고, 표본의 교체가 가능한 횡단조사로 조사를 설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재정패널조사의 경우 가구의 재정상태를 파악을 위해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계동향조사와 동일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조사이기 때문에, 동태 분석에 적합한 패널조사로 설계되었다. 패널조사는 고정된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조사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주기마다 동일한 문항을 반복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패널조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른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패널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표본의 규모가 횡단조사에 비해 작고, 조사주기를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하여 조사하게 된다.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규모가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작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조사주기 또한 1년으로 긴 편이다.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긴 조사주기를 갖는 조사들은 일반적으로 가계부 자체식 조사방식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추적조사로 인해 응답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사방식으로 인한 피로도까지 높아진다면 조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에서는 패널조사에 적합한 면접 타계식 조사방식을 사용하고, 동시에 회상에 의한 응답 왜곡의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행정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수집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주요 조사항목인 소득과 개인의 소득공제 현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소득증빙자료인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서류의 정보는 다른 조사항목과 함께 전산화되어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분석에서 보다 정확한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 부분은 재정패널자료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8차년도(2014년 귀속) 소득증빙자료 수집률

(단위: 건 %)

구분		해당 case	제출건수	수집률	[참고] 1차년도 귀속서류 수집률
전체 유효표본 가구		4,819	1,928	40.0	14.0(703/5,014)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2,957	1,928	65.2	26.2(703/2,612)
가구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3,064	1,876	61.2	26.8(658/2,386)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901	377	41.8	10.8(78/722)

재정패널조사에서 수집한 행정자료의 수집비율은 8차년도(2014년도 귀속) 기준 40%이다. 이 수치는 조사에 성공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들 가구 중에는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없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가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기준을 변경하면 65.2%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셈이 된다.

재정패널조사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수집한 것은 1차년도부터인데, 〈표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때의 소득증빙자료 수집률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14% 수준이었다. 이렇게 초기 수집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증빙자료 제출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최근에도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가구들은 존재하지만, 조사 초기에는 조사와 면접원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거절한 가구들이 더 많았다. 이로 인해 수집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침에 대한 꾸준한 안내와 조사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서류 제출 가구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매년 증빙서류 수집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 주요 조사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패널과 가계동향자료의 주요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정패널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7년부터 2014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중치(재정패널자료는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가.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본격적인 결과 분석에 앞서 두 조사에서 추출된 표본 가구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두 자료의 조사모집단 자료로 활용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자료로 두고 가구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1번씩 진행되는 전국단위의 인구조사로, 표본조사의 주요 조사모집단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다. 재정패널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2005년 자료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고, 3년을 주기로 표본 추출을 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표본 추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였다. 본절에서는 2010년¹⁾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두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가구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계동향자료에서 조사된 가구들은 기준자료와 비교할 때 여성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가구원들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기준자료보다 1.6세가량 낮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20대 이하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평균연령이 낮아 전체 평균연령이 낮아진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의 비율이 20.4%로 기준자료보다 4%p가량 낮은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36.5%로 6.5%p 높았다. 가구원 중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 15~64세의 경제활동가능인구만 추려서 살펴보면, 1가구당 경활가능 가구원이 2명이 존재하는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경활가능인구는 기준자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기준자료와 비교해볼 때 가구원들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비슷한 모습이었고, 가구원들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기준자료보다 1.4세 낮고, 가계동향자료보다는 0.2세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계동향자료와 동일하게 재정패널자료에서 조사된 20대 이하 가구원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60대 이상 가구원들의 연령은 재정패널자료에서 약 1세가량 높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패널자료에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패널종단조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패널종단조사의 경우 동태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동일한 대상자를 추적하여 조사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연령 증가가 표본의 특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횡단조사자료에 비해 고연령층의 분포나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재정패널자료의 가구당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도 나타났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기준자료보다 가구원 수나 경활가능인구 수는 많지만, 이 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가구원들의 비율은 낮았는데, 가구당 68.1% 수준

1) 인구주택총조사의 2015년 조사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었다. 이 수치는 기준자료보다 약 5%p 낮고, 가계동향자료와 비교해도 0.8%p가 낮았다. 또한 경활가능인구가 전혀 없는 가구의 비율이 12.2%로 높고, 이 가구들의 평균연령도 높게 나타나(가계동향자료 72.5세, 재정패널자료 73.3세), 자료의 상대적 고령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횡단조사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결과 비교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3〉 조사대상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	재정패널
성별	남자	48.9	47.1	48.3
	여자	51.1	52.9	51.8
연령	(평균)	(37.8세)	(36.2세)	(36.4세)
	20대 이하	35.9(15.5세)	37.9(13.7세)	37.6(14.2세)
	30대	16.6(34.7세)	16.3(34.9세)	18.0(34.6세)
	40대	17.5(44.5세)	18.1(44.3세)	16.6(44.3세)
	50대	14.0(54.0세)	12.6(53.9세)	12.7(53.8세)
	60대 이상	16.0(69.8세)	15.1(69.4세)	15.2(70.6세)
가구원 수	(평균)	(2.7명)	(2.7명)	(2.8명)
	1인 가구	24.2	20.4	17.5
	2인 가구	24.6	21.8	22.3
	3인 가구	21.3	21.4	25.1
	4인 가구	30.0	36.5	35.2
	1가구당 경제활동 가능인구	(평균)	(1.9명)	(1.9명)
0명	11.1	11.3	12.2	
1명	25.3	20.9	18.4	
2명	36.4	41.0	41.4	
3명	16.7	16.5	16.0	
4명 이상	10.5	10.2	12.0	
총 가구원수 대비 경활가능인구		72.7	68.9	68.1

한편, 학력과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구원 전체 자료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대상이 된 경활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가구원 전체의 평균연령에 비해 약 2~3세가량 높고, 성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남성의 성비가 조금 더 높아진 편이었다.

먼저, 가계동향자료에서 나타난 경활가능가구의 최종학력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등학교 졸업 가구의 비율이 42.8%로 기준자료와 비교해 0.6%p 높았으나, 대학 졸업 이상 가구원들의 비율이 낮고, 중학교 졸업 이상 가구원들의 비율이 많아 전반적인 학력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기준

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p 높고, 자영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중학교 이하 졸업 가구원의 비율이 낮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들은 가장 많아 세 가지 자료 중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가계동향자료가 임금근로자가 많은 자료였다면, 재정패널자료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기준자료보다 2%p 낮고 무직자의 비율이 4%p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경활가능인구 중에서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자료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경제활동가능인구(만 18세~64세) 특성

(단위: %)

구분		경제활동 가능 가구원				
		인구주택	가계동향		재정패널	
평균연령		(39.8세)	(39.5세)		(38.8세)	
성별	남자	49.4	47.08		48.9	
	여자	50.6	52.92		51.1	
최종 학력	무학	1.0	1.2		0.8	
	초등 졸업	7.2	7.6		6.2	
	중등 졸업	13.9	15.5		12.4	
	고등 졸업	42.2	42.8		41.4	
	대학 졸업	32.6	30.0		36.6	
	대학원 졸업	3.1	2.9		2.6	
종사상 지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43.2	28.5	41.2	36.6
		임시직		13.5		
		일용직		5.2		
	자영업자	고용원 있음	4.8	3.5		2.9
		고용원 없음	9.7	9.3		11.9
	무급가족종사자		4.0	2.0		1.8
	무직 및 기타 ¹⁾		38.2	38.0		42.2

주: 1) 가계동향자료의 경우 종사상지위 중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무직 및 기타"로 코딩하고 있다. 다른 자료는 모두 "무직"을 의미한다.

나. 가구 소득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패널과 가계동향자료의 주요 항목들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살펴볼 항목은 소득이다. 재정패널자료에서 소득을 조사할 때는 일정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의 정의에 맞는 수입금액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가계동향자료에서는 가구에 유입되는 모든 수입금액을 조사한 다음 정의에 따라 항목화하여 데이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조사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각각 조사에서 측정된 수입정보는 소득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전산화되며, 이렇게 측정된 가구의 총소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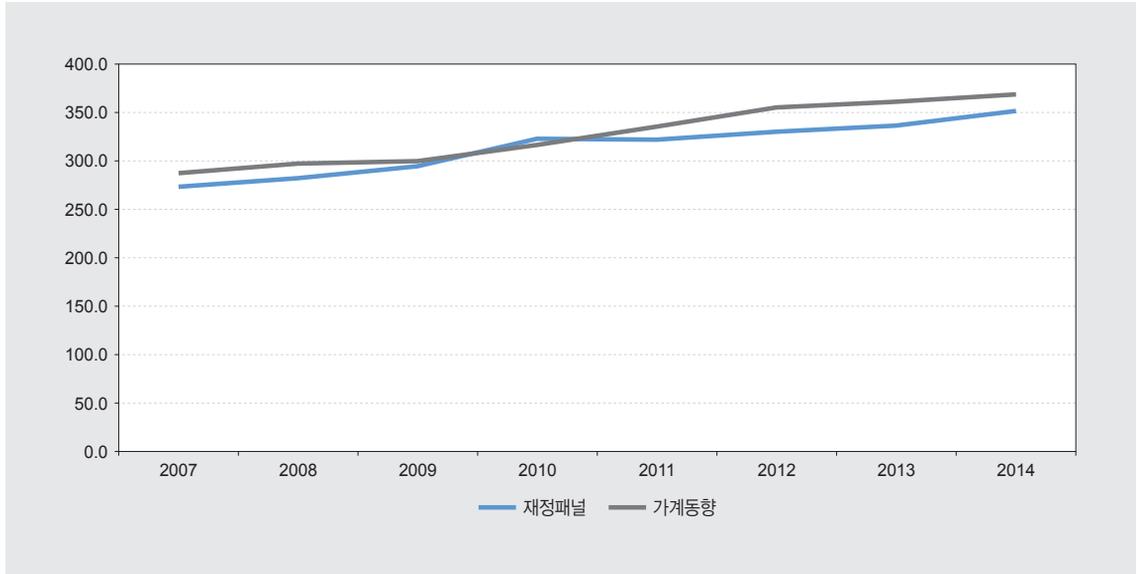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표현된다. 이 그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재정패널자료의 소득수준이 더 낮게 조사되었고, 2009~2010년을 제외하면 최근에도 그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단순비교 방식은 두 조사의 특성과 조사항목의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정확한 비교라고 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두 자료에서 측정하는 소득항목은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조사방식 또한 종단조사와 횡단조사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5>와 같이 분석항목을 세분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상소득은 총소득 항목 중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비교한 것이다. 비경상소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시금이나 퇴직금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산의 변화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키고 있어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경상소득으로 정의를 일치시킨 후 비교하면 두 자료의 소득금액 차이는 평균 약 13.7만원에서 9.1만원으로 좁혀진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재정패널자료는 동태분석을 목적으로 조사 설계한 패널종단방식의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표본의 연령의 증가 효과가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연령조건하에서 소득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있는 가구들로 대상을 좁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의 “2-1. 경활가구”와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하면 평균 소득의 차이가 6만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2010년의 경우 두 자료 간 소득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약간 더 커진 결과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 보정기준자료의 변경(2005년 → 2010년), 증빙서류 수집률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 추후의 분석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림 1]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총소득 변화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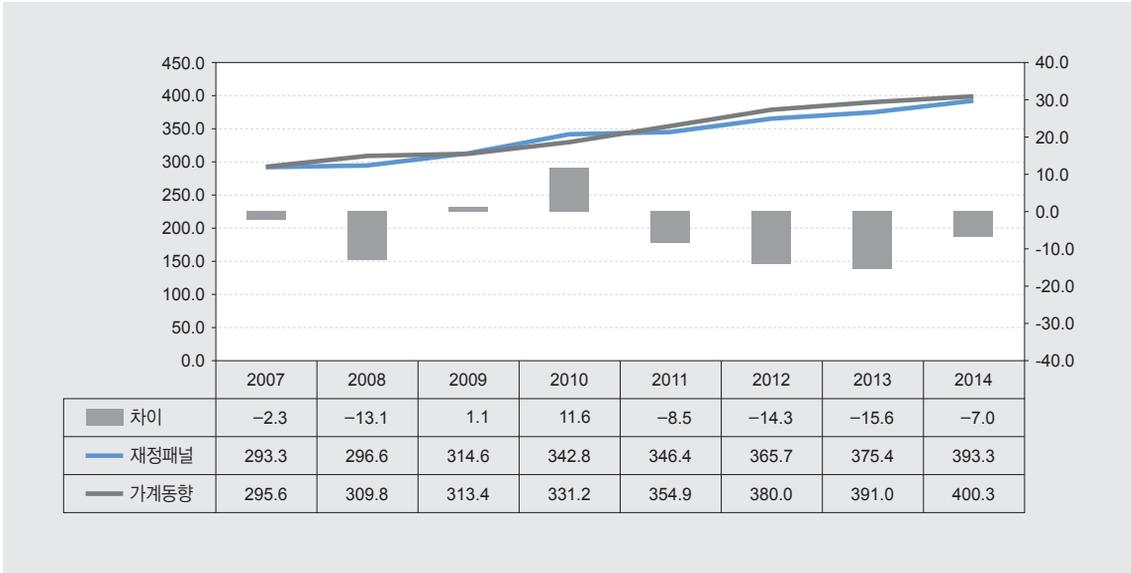
<표 5>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소득비교

(단위: 만원, %)

구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정패널								
1. 총소득	273.2	282.2	294.7	323.5	322.6	330.6	337.4	351.3
2. 경상소득	268.3	270.8	286.7	311.3	311.7	320.4	327.9	340.7
2-1. 경활가구	293.3	296.6	314.6	342.8	346.4	365.7	375.4	393.3
2-2. 가중치미부여	307.0	316.7	329.9	357.1	371.8	391.2	404.0	423.3
2-3. 상용직가구	-	-	398.0	426.3	449.1	484.0	484.5	498.2
가계동향								
1. 총소득	287.1	297.2	300.2	317.7	336.3	355.6	361.8	369.2
2. 경상소득	272.9	283.4	286.2	303.8	322.3	340.6	347.3	354.0
2-1. 경활가구	295.6	309.8	313.4	331.2	354.9	380.0	391.0	400.3
2-2. 가중치미부여	292.7	307.5	311.2	328.0	346.9	367.5	380.2	388.5
2-3. 상용직가구	-	-	407.8	417.4	434.3	457.4	467.2	479.4

[그림 2] 경제활동가능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추이와 소득차이 변화

(단위: 만원)



다만,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본고에서 분석하는 모든 결과는 가중치(재정패널자료는 횡단면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그러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와 부여하지 않은 결과에는 차이가 있어 연구자들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표 5〉의 “2-2.가중치 미부여”)와 비교해 재정패널자료는 평균 21.6만원 더 낮고, 가계동향자료는 6.7만원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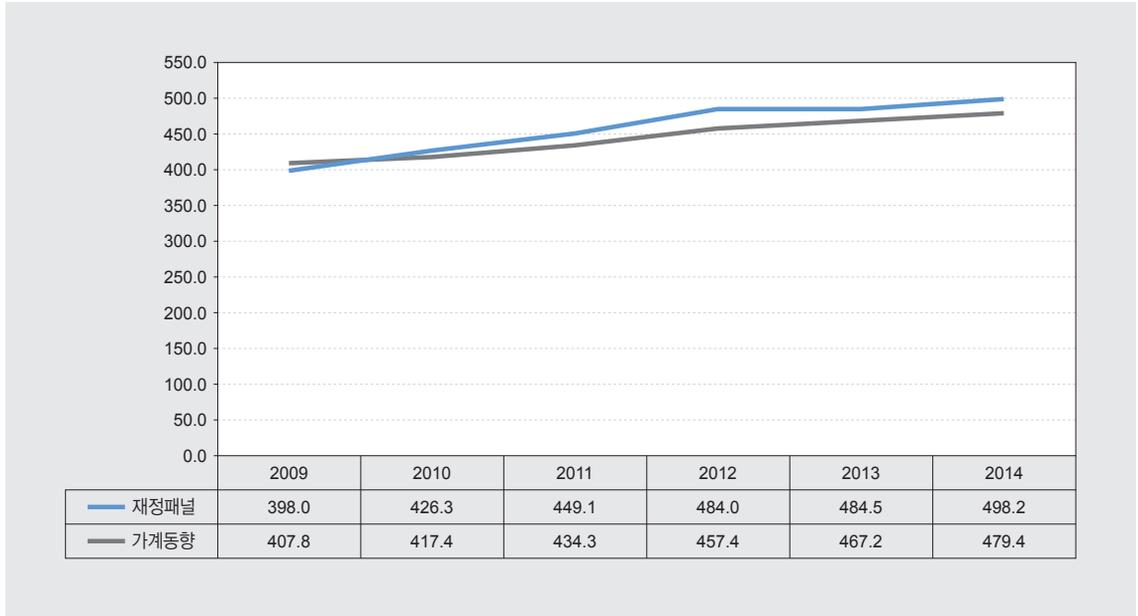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상용직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이다. 재정패널자료는 소득증빙자료를 통해 수집한 소득정보를 전산화하고 있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정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모든 가구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간에 제출물의 차이가 있어²⁾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분석대상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소득증빙자료 제출률이 높게 나타난 근로소득자 집단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 가구³⁾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해 경상소득을 비교하였다.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2007~2008년 결과를 제외하고 살펴본 결과, 두 자료의 경상소득은 그동안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자료의 경상소득이 전반적으로 가계동향자료보다 높게 나타나고, 소득의 차이는 평균 9.1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2) 8차년도 기준 근로소득자의 증빙서류 제출률은 61.2%이었고, 종합소득자는 41.8%이었다.

3) 가계동향자료에서는 1998~2008년간 종사상지위를 9개의 코드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는데, 사무종사자 코드에서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을 함께 조사하여 상용직 임금근로자를 추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2009년부터 진행하였다.

[그림 3] 상용직가구 월평균 경상소득 추이

(단위: 만원)



앞서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경상소득의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소득을 분위별로 나누어 계층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분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10분위의 소득계층을 나누었다. 그 결과, 1~9분위에서는 재정패널자료의 경상소득이 더 낮게 나타났고, 10분위에서는 재정패널자료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에서는 9분위와 10분위의 소득차이가 1.7배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여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계동향자료와 비교해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보고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표본 추출방식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재정패널조사는 가계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설계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극히 적거나, 매우 많은 가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의 표본 추출로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을 얻기가 힘들었으며,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가구들의 경우 사회조사에서의 표본 탈락률이 높아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 표본 추출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조사에서는 분석에서 필요한 특정 계층의 가구들이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탈락률을 감안하여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들이 과대 표집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위에 따른 경상소득의 차이는 표본추출

4) 재정패널자료의 특징적인 표본 추출 과정은 통계적 추출기법을 준수하여 무작위로 실행되었으며, 추후 가중치 보정에 따라 보정하였기 때문에 재정패널자료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들의 경우 이러한 집단들에서 조사 탈락이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패널자료와 결과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은 재정패널자료에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징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다만, 1~2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표 7>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고령가구나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사가 진행될수록 마모되어 과대추출에 따른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4년 소득분위별 월평균 경상소득 규모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재정패널(s.d)	39.7	83.2	130.6	181.2	238.0	300.7	373.2	461.7	588.3	1012.1
	(0.68)	(0.63)	(0.68)	(0.75)	(0.90)	(0.76)	(1.07)	(1.30)	(2.14)	(30.41)
가계동향(s.d)	39.7	99.8	165.1	231.4	291.5	349.5	410.6	484.7	594.1	875.7
	(0.58)	(0.56)	(0.60)	(0.58)	(0.51)	(0.55)	(0.59)	(0.83)	(1.31)	(7.23)

<표 7> 2014년 재정패널자료 소득분위별 가구 특성

재정패널	1분위	2분위	5분위	9분위	10분위
가구주 연령(세)	70.3	65.6	50.6	46.2	48.6
가구원 수(명)	1.4	1.7	2.5	3.5	3.6

이번에는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세부 소득항목을 살펴보자. 2014년을 기준으로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세부 소득항목의 비중은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50%가 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인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산소득 순이었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분석대상자를 경찰가구로 조정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표 8> “2. 경찰가구대상”) 근로소득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가계동향자료에 비해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았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더욱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10분위, 그리고 중간계층인 5분위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예상과 같이 1분위에서의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작고, 10분위에서 가장 높았는데, 재정패널자료에서는 특히 사업소득의 비중이 가계동향자료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즉, 재정패널자료에 상대적으로 고령층 가구에 속하는 1분위 가구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분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재산소득의 경우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재정패널자료의 재산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재산소득부터 응답하도록 한 재정패널자료의 조사지침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8〉 2014년 경상소득 중 세부 소득항목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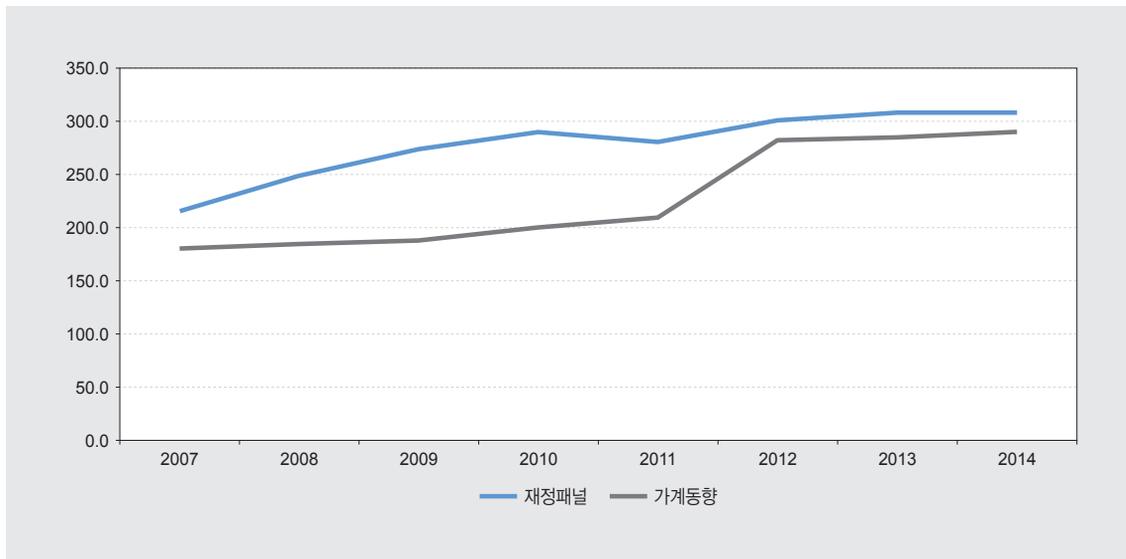
구분 \ 소득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재정패널					
1. 전체가구대상	54.7	22.1	0.7	14.7	7.8
2. 경찰가구대상	65.3	22.9	0.6	7.9	3.3
3-1. 소득1분위	9.3	14.1	1.4	51.8	23.5
3-2. 소득5분위	58.6	25.3	0.8	10.4	5.0
3-3. 소득10분위	75.2	19.6	0.6	3.8	0.8
가계동향					
1. 전체가구대상	57.7	19.6	0.6	12.9	9.2
2. 경찰가구대상	66.0	20.9	0.4	6.5	6.1
3-1. 소득1분위	15.5	7.3	1.5	52.3	23.4
3-2. 소득5분위	62.3	24.9	0.4	6.8	5.7
3-3. 소득10분위	75.2	19.8	0.4	1.8	2.8

다. 가구 지출

가구의 지출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강점을 갖는 자료는 가계동향자료이다. 조사의 목적이 지출항목별 현황 파악에 있기 때문인데, 세분류를 기준으로 370여개의 변수(2014년 기준)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사 목적이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파악에 있는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80여개의 변수(8차년도 기준)로 소비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두 자료에서 조사하는 지출항목의 수는 현저히 다르지만 두 자료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다. 재정패널자료가 가계동향자료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COICOP)에 기준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했기 때문이며, 적은 문항으로 조사하지만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조사지침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싶다면, 가계동향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반적인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재정패널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럼 실제 지출의 결과값에는 두 자료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결과를 살펴보고 하겠다.

[그림 4]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총지출 변화

(단위: 만원)



먼저, 가구에서 사용된 모든 지출의 금액을 합산한 총지출금액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패널자료의 지출금액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사지침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출항목에 포함되는 상세 조사지침이 비슷한 항목으로 다시 합산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지출의 유형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포함되는 상세 항목은 <표 9>와 같다.

<표 9> 지출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교통
	주류 및 담배	통신
	의류 및 신발	오락·문화
	주거 및 수도광열	교육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음식·숙박
	보건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세금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기부금)
	사회기여금(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민간보험료

지출에 대한 정의를 일치시킨 후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소비지출의 경우 2차년도 이후로 재정패널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조사가 진행될 수록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였다. 소비지출에 대한 두 자료간 금액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으나, 재정패널조사에서 매년 문항의 정교화를 통해 상세한 지출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비소비지출항목 중 민간보험료의 경우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소비지출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비소비지출로 정의하여 그 규모를 비교하여 본 결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보험료의 조사 정의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 지출액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인 지출비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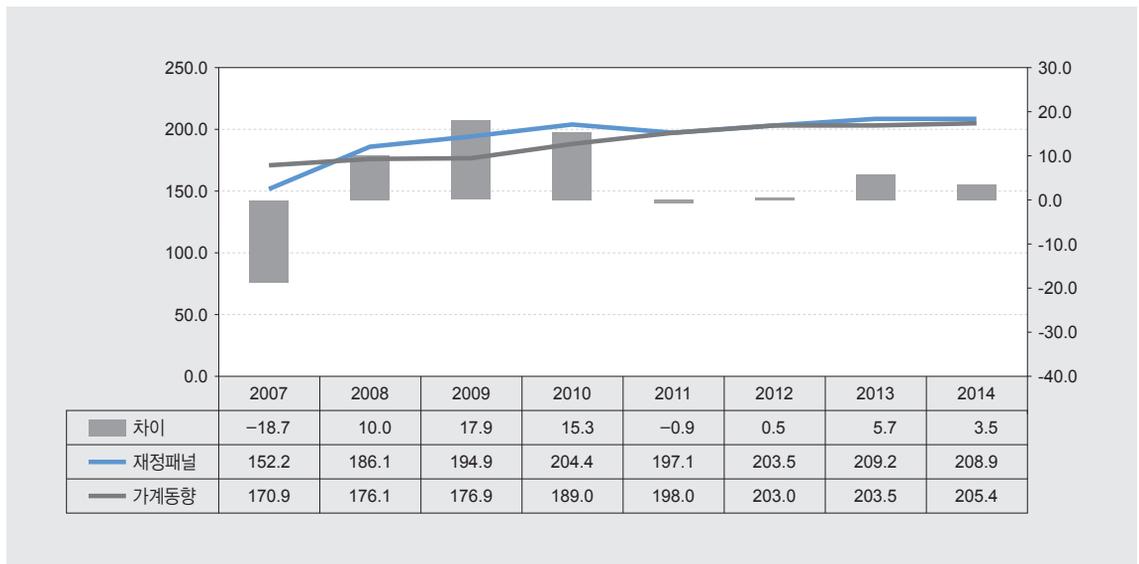
〈표 10〉 재정패널자료와 가계동향자료의 월평균 지출비교

(단위: 만원)

구분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재정패널								
1. 소비지출	152.2	186.1	194.9	204.4	197.1	203.5	209.2	208.9
2. 비소비지출	51.0	51.5	55.7	61.4	60.7	67.1	72.2	69.9
가계동향								
1. 소비지출	170.9	176.1	176.9	189.0	198.0	203.0	203.5	205.4
2. 비소비지출	52.8	54.3	55.9	61.2	66.0	70.7	74.1	76.7

[그림 5] 경제활동가능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와 차이 변화

(단위: 만원)



다음으로 지출분위별 규모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소비지출에 있어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재정패널자료의 지출규모가 더 작았으며, 8분위부터 최고지출분위인 10분위까지의 소비지출규모는 재정패널자료에 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분위 집단의 소비지출규모는 가계동향자료의 1.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표 6>에 이어 지출에서도 상위 10% 집단의 지출규모가 가계동향자료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재정패널자료는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어서 조사대상가구들 간의 차이가 큰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1> 2014년 지출분위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

(단위: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재정패널(s.d)	35.3	66.2	98.3	130.5	160.4	198.2	236.3	281.8	342.3	540.0
	(0.52)	(0.41)	(0.46)	(0.43)	(0.46)	(0.5)	(0.53)	(0.65)	(0.99)	(7.39)
가계동향(s.d)	44.6	79.6	111.4	142.3	172.2	203.4	237.4	276.3	328.5	458.8
	(0.38)	(0.29)	(0.27)	(0.27)	(0.26)	(0.29)	(0.34)	(0.39)	(0.66)	(3.67)

지출규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부 지출항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그 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료품비였다. 이 항목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문항의 정교화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응답하는 문항은 여러 번의 회상에 의하여 응답하여 정교화된 응답을 얻을 수 있으나, 단순화된 문항으로 조사하는 경우 정교화 과정이 생략되어 실제 금액과 왜곡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식료품비가 그 적절한 예가 되는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식료품비에 대한 응답을 무려 147개의 항목으로 나눈 반면,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식료품비를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반면, 가사서비스비, 이미용비, 기타서비스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상품항목에서는 재정패널자료가 더 낮은 지출규모를 보였는데, 이러한 항목에는 일시적이거나 지출항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비나 기타개인용품구입비 등이 그것인데, 산후조리비는 보건의료비의 항목에 녹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개인용품구입비는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항목이어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12〉 2014년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규모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등	보건
재정패널	평균	43.3	1.9	11.2	22.1	5.7	10.8
	(s.d)	(28.9)	(4.2)	(12.4)	(28.8)	(26.6)	(21.1)
	비중	20.7%	0.9%	5.3%	10.6%	2.7%	5.2%
가계동향	평균	30.9	2.5	14.5	25.1	9.0	15.0
	(s.d)	(16.3)	(3.5)	(14.7)	(25.3)	(17.5)	(18.8)
	비중	15.0%	1.2%	7.0%	12.2%	4.4%	7.3%
차이		12.4	-0.6	-3.3	-3.0	-3.3	-4.2

구분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재정패널	평균	27.6	14.7	12.5	23.7	31.8	4.4
	(s.d)	(28.0)	(10.4)	(0.0)	(0.0)	(0.0)	(0.0)
	비중	13.2%	7.0%	6.0%	11.4%	15.3%	2.1%
가계동향	평균	19.7	12.7	12.6	22.5	28.9	12.0
	(s.d)	(16.4)	(9.1)	(0.0)	(0.0)	(0.0)	(0.0)
	비중	9.6%	6.2%	6.2%	10.9%	14.1%	5.8%
차이		7.8	1.9	-0.1	1.2	3.0	-7.5

마지막으로 비소비지출은 지출분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8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의 비소비지출액이 재정패널조사에서 작게 나타났고, 5분위와 9분위에서는 약 15만원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기부금 지출(〈표 14〉)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쳤는데, 10분위와 8분위의 경우 민간보험료 지출이 높게 나타나 전체 비소비지출 규모에서 가계동향자료와의 차이가 상쇄된 모습을 보였다.

〈표 13〉 2014년 지출분위별 월평균 비소비지출 규모

(단위: 만원)

구분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재정패널											
전체 (s.d)		4.1	12.2	27.7	43.0	52.8	77.3	88.9	112.7	115.2	165.1
		(0.45)	(0.83)	(1.25)	(1.92)	(1.83)	(2.25)	(2.72)	(5.36)	(2.97)	(5.27)
경상세		0.5	1.1	2.0	3.1	3.3	6.6	7.1	13.1	11.8	28.7
		(0.09)	(0.11)	(0.26)	(0.52)	(0.32)	(0.95)	(0.98)	(1.28)	(0.96)	(2.48)
사회보험료		1.1	2.9	8.3	11.8	16.0	22.0	25.6	30.8	34.5	46.1
		(0.18)	(0.26)	(0.48)	(0.64)	(0.64)	(0.69)	(0.78)	(0.77)	(0.81)	(1.04)
민간보험료		2.0	7.4	16.0	25.7	31.2	45.2	52.3	63.6	63.7	78.7
		(0.29)	(0.66)	(0.87)	(1.17)	(1.26)	(1.44)	(1.93)	(4.69)	(2.03)	(2.71)
기부금		0.6	0.8	1.3	2.4	2.3	3.5	3.9	5.2	5.2	11.7
		(0.11)	(0.14)	(0.23)	(0.52)	(0.39)	(0.49)	(0.51)	(0.71)	(0.58)	(1.39)
가계동향											
전체 (s.d)		9.4	21.9	35.8	51.7	67.5	79.5	94.2	111.2	129.9	166.4
		(0.44)	(0.83)	(1.01)	(1.22)	(1.69)	(1.58)	(1.76)	(2.13)	(2.62)	(3.64)
경상세		0.8	1.7	2.9	3.9	6.2	6.7	9.1	13.2	17.1	32.1
		(0.09)	(0.16)	(0.19)	(0.22)	(0.35)	(0.33)	(0.4)	(0.66)	(0.7)	(1.66)
사회보험료		2.0	5.2	9.5	14.6	18.5	22.3	26.3	29.6	33.4	44.5
		(0.14)	(0.24)	(0.32)	(0.37)	(0.45)	(0.52)	(0.49)	(0.59)	(0.64)	(0.87)
민간보험료		4.0	10.7	17.5	27.2	34.6	41.3	48.6	55.3	64.5	70.7
		(0.3)	(0.58)	(0.66)	(0.87)	(1.22)	(1.05)	(1.24)	(1.4)	(1.78)	(1.86)
기부금		2.6	4.2	5.9	6.0	8.1	9.3	10.3	13.0	14.8	19.0
		(0.13)	(0.21)	(0.3)	(0.28)	(0.4)	(0.45)	(0.49)	(0.61)	(0.69)	(0.83)

끝으로 비소비지출항목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재정패널 비소비지출항목의 조사 특성을 살펴 보았다. 먼저, 세금항목은 경상소득세, 사업소득세, 경상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상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경우 재정패널자료에서는 소득증빙서류 수집을 통해 1차년도부터 전산화한 정보이다. 반면, 경상재산세의 경우 4차년도부터 정식 문항으로 조사된 항목으로 모든 보유 주택에 대한 경상재산세를 포함한 것은 5차년도⁵⁾ 이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5차년도 조사결과인 2011년 자료를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1~3차년도의 경우 세금에서 재산세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회보장료 지출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 기여금과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5) 5차년도에 재정패널조사에서 신설한 경상재산세 문항은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현황으로 기존 문항을 보강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개별 주택의 현재 가격과 취득년도, 명의자의 정보, 재산세 면제 주택 여부 등 관련 문항도 함께 신설하였다.

포함하는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반대로 민간보험료는 개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보장성 보험 및 운송관련 보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계동향자료에서는 민간보험료를 소비지출항목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부금의 경우 가계동향자료에서는 종교단체, 정당, 종종, 사회운동단체, 자생상조회 등으로 이전되는 지출이며, 재정패널자료에서 정의하는 기부금은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문화예술기관, 종교기관 등으로 이전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표 14〉 2014년 비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규모 비교

(단위: 만원)

구분		경상세	사회보장보험료	민간보험료	기부금
재정패널	평균	7.7	19.9	38.6	3.7
	(s.d)	(26.24)	(20.65)	(53.44)	(14.77)
	비중	11.1	28.5	55.2	5.3
가계동향	평균	9.4	20.6	37.4	9.3
	(s.d)	(21.4)	(20.01)	(42.55)	(15.59)
	비중	12.2	26.8	48.8	12.1
차이		-1.7	-0.7	1.1	-5.6

3. 맺음말

본고는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주요 조사결과를 국내 유사 조사자료인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재정패널자료 사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료의 특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성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정패널자료는 경상소득에 있어서는 가계동향자료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으나, 분석대상을 경활가능인구가 있는 가구로 세분화할 경우 그 차이가 더욱 감소되었으며, 소비지출에서는 재정패널자료에서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매년 조사문항의 정교화로 그 차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비교의 과정 중 재정패널자료의 표본 설계(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에 대한 과대표집)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단순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사에서 벗어나 관련항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효과성 분석이 뛰어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소득 및 지출에 있어 세부 내역을 분리하여 분석이 가능한 항목들이 존재하고, 소득세나 소득공제 항목에 있어서는 정확성이 높은 자료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어 분석에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재정패널자료가 가지고 있는 표본 추출의 특성 및 세부 항목의 변화폭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본고에서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직접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통해 재정패널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재정패널조사가 양질의 분석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부록 1〉 소득 유형별 조사항목 비교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연간)
경상소득	시장소득	근로소득	급여소득	총 근로소득
			상여금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매출
				사업소득-순소득
			주택 등 임대소득	임대소득-주택
				임대소득-토지
				임대소득-상가
		재산소득	이자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수입	개인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퇴직연금수입	
	기타재산소득		-	
	이전소득	공적	공적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수혜금	사회수혜금-산재보험
				사회수혜금-고용보험
				사회수혜금-보훈급여금
				사회수혜금-자녀양육지원금
				사회수혜금-농어업정부보조금
				사회수혜금-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사회수혜금-유가보조금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
사회적현물이전		사회적현물이전		
사적		타가구 이전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그외	할인혜택	-		
	기타 이전소득			

〈부록 1〉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연간)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일시금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특수직역(퇴직금·연금일시금)	
				산재보험(일시금)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그외	경조소득	경조소득		
		기타 비경상소득	-		
	기타수입	자산변동	저축 및 보험탄 금액	보장보험 소득	
			유가증권 매각	저축보험 소득	
			보증금 회수	양도소득 금액	
			부동산 매각	양도손실 금액	
		부채증가	부동산 관련 빌린돈	부동산 매각 금액	
			기타 빌린돈	부동산 매입 금액	
		자산이전	증여	부동산 부채 잔액	부동산 부채 잔액
				기타 부채 잔액	기타 부채 잔액
				상속	
				증여	

〈부록 2〉 지출 유형별 조사항목 비교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소비지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18개 항목별 지출금액	식료품 구입비	
	주류 및 담배	소주	소주 · 맥주 · 양주	소주 · 맥주 · 양주
		맥주		
		양주		
		와인 및 과일주	와인	
		막걸리	막걸리 및 기타주류	
		기타주류		
		담배	담배	
	의류 및 신발	20개 항목별 지출금액	의류	
	주거 및 수도광열	15개 항목별 지출금액	잡화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난방용 유류비	
			연탄	
			LPG	
기타				
주택수리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9개 항목별 지출금액	가구 구입비		
		인테리어비		
		냉장고 등 구입비		
		세탁기 구입비		
		에어컨 구입비		
		기타 가전제품 구입비		
		기타 가전제품 렌탈비		
		가사도우미서비스		
보건	13개 항목별 지출금액	한약재		
		성형수술비		
		치과진료비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부록 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소비지출	교통	23개 항목별 지출금액	공공교통비
			차량유지비
			오토바이 유지비
			운송기구 연료비-휘발유
			운송기구 연료비-경유
			운송기구 연료비-LPG
			운송기구 연료비-기타
	통신	7개 항목별 지출금액	이사비
			통신장비 구입비-핸드폰
			통신장비 구입비-기타
			유선전화비
			휴대폰비
	오락·문화	41개 항목별 지출금액	인터넷 사용료
			기타 통신 사용료
			TV구입비
			카메라 등 구입비
			컴퓨터 등 구입비
			악기 구입비
			스포츠험저장비 구입비
			체육, 음악, 문화 활동비
			박물관, 공연, 영화관람료
			유료방송 시청료
			복권 구입비
			경륜, 경정, 경마권 구입비
			서적, 음반, DVD 구입비
	참고서 구입비		
	교육	23개 항목별 지출금액	신문, 잡지구독료
국내여행비			
음식·숙박	5개 항목별 지출금액	국외여행비	
		공교육	
		사교육	
			외식비
			급식비

〈부록 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소비지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8개 항목별 지출금액	이미용서비스
			화장품 구입비
			장신구 구입비
			산후조리원 이용료(일부)
			혼례비
			장례비
비소비 지출	세금지출	경상소득세	경상소득세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경상재산세	경상재산세
		자동차세	-
		기타경상세금	-
		비경상조세	-
	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직장가입자 기여금
			지역가입자 기여금
		공적연금 기여금	임의/계속가입자 기여금
			특수지역 가입자 기여금
	사회보장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타사회보험료	고용보험료
	민간보험	생명보험	민간보험-퇴직연금
		화재보험	민간보험-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및 연금보험	민간보험-보장보험
		운송관련보험등	민간보험-자동차보험
	가구간 이전지출	교제비 교제비	공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
		경조비	경조비
		국내학생가구 송금	타가구원 이전 지출
		국외학생및환자에 대한 송금	
		기타송금(국내)	
		기타송금(국외)	

〈부록 2〉의 계속

구분	세부내용	조사항목	
		가계동향조사(조사기간: 월간)	재정패널조사(조사기간: 월간/연간)
비소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단체회비	-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 기부금	정당기부금
			교육기관기부금
			사회복지기관기부금
			문화예술기관기부금
			종교기관기부금-현금,보시
			종교기관기부금-성금
	기타기부금		
	이자비용	주택대출이자	이자및원금
		기타이자	이자및원금
	기타지출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저축
			민간보험-연금저축
			민간보험-저축보험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부채상환-정부지원주택자금대출
			부채상환-학자금대출
			부채상환-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부채상환-금융기관대출
부채상환-신용카드관련대출			
자산 이전	상속		
	증여		